

지리적 이동에 관한 심리학적 탐색: 주거 유동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및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계

홍 승 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 유동성의 심리사회적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리적 이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및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상호의존성을 관계 중심적 측면과 집단 중심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인의 이주 경험이 이 두 유형의 상호의존성과 차별적으로 관련되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탐색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 이전 경험이 증가할수록 집단 상호의존성의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관계 상호의존성에 있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 유동성에 관한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주거 유동성,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사회적 지지 추구

[†] 교신저자: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02-920-7303, E-mail: hpark@sungshin.ac.kr

지리적 이동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미국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겨져 왔다(Oishi & Kisling, 2009; Triandis, 1995; Turner, 1921). 실제로,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더 나은 교육과 직업을 찾아, 혹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기존 거주지를 벗어나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Schmitt, 2001). 그러나 지리적 이동은 더 이상 미국 사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새로운 도시나 국가로 이주하고 있다. 실제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들의 수는 2005년에 약 1억 9천 1백만 명에서 2010년에는 약 2억 1천 4백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9). 국내에서도 1970년 12.6%를 시작으로. 인구이동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1975년(25.5%) 이후 2005년(18.1%)에 이르기까지 매년 총 인구의 대략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지리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거주지 이동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으며(Oishi, 2010), 심리학 전반에 걸쳐 이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Adam, 2004; Kennedy, 1984; Kling, Ryff, & Essex, 1997; Stokols, Shumaker, & Martinez, 1983). 그러나 이와 같은 학문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리적 이동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박혜경, 2013).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리적 이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자기개념이 상호의존적인 정도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주거 유동성이란 무엇인가?

전 지구적으로 개인, 집단 및 국가 간 주거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리적 이동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Baumeister(1986, 1987)는 종교개혁, 산업혁명 및 정치혁명을 통한 주거 유동성의 증가가 서구 유럽인들의 자기개념에서 사적 자기가 가장 현저한 측면으로 자리 잡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논하였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기개념에서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aumeister, 1986, 1987; Cohen, 2003; Wiggins, 1991). 거주지를 빈번하게 이동하는 사람들은 소속 집단이 자주 바뀌게 되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자기개념 속에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소속과 역할이 아닌, 성격 특성이나 개인적 능력과 같은 내적이고 영속적인 속성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이에 반해, 주거 이동 없이 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단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소속 집단의 특성을 자기개념 속에 더 많이 반영하게 된다(Triandis, 1989). 이에 따라 이들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려는 경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일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부합하는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일례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동성 수준이 낮은 중소 도시의 거주자들에 비하여 개인의 성격 특성과 능력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기를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관찰되었다(Kashima, Kokubo, Kashima, Bozall, Yamaguchi, & Macrae, 2004). 개인의 지리적 이동 경험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도 위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Oishi, Lun

과 Sherman(2007)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 입학 전 까지 주거 이동이 빈번하였던 미국 연구참가자들은 주거 이동 경험이 없었던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성격 특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빈번한 이주를 경험하였던 연구참가자들은 이주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소속 집단이 더 적었다. 요컨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주거 유동성이 높은 대도시 거주자들과 개인적으로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개인적 자기의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주거 유동성이 낮은 중소도시 거주자들과 개인적으로 주거 이동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집단적 자기의 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주거 유동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Long, 1992). 그러므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은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지리적 이동의 심리 사회적 효과가 서구 문화권에서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권에서는 주거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독립성과 독특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집단주의적 가치를 자기개념에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리적 이동이 심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인가, 혹은 문화 특수적인가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으며 개인의 독립성에 비하여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 유동성 수준이 서구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호의존적 가치가 권장되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 유동성이 자기개념

의 상호의존성 및 사회적 지지의 추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선행 연구를 통하여 문화권에 따라 개인과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전통적으로 북미 및 서구 유럽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를 자율적이고 독특하며 사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 강조되어 왔다(Adams & Plaut, 2003; 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문화 맥락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고, 관심의 초점을 타인이나 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스스로를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사람들은 주변 관계, 혹은 소속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통하여 스스로를 인식하며, 관계와 집단 내 조화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자기개념을 지닌 것은 아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의 연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일례로, Kashima와 동료들(Kashima, Yamaguchi, Kim, Choi, Gelfand, & Yuki, 1995)은 개인주의적인 문화 배경을 지닌 미국인들과 호주인들이 집단주의 문화권의 일본인들에 비하여 관계적 자기 성향을 더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는 일견,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보다 더 상호의존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 및 연구 결과들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 간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개인주의 문화

에서 관찰되는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은, 상호의존성을 관계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속 집단에 대해 상호의존적인 정도와는 별도로 주변 지인들과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Brewer & Chen, 2007; Brewer & Gardner, 1996; Cross, Bacon, & Morris, 2000; Cross & Madson, 1997; Kashima et al., 1995). 예를 들어, Cross와 동료들(2000)은 기존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세분화하여, 배우자나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친밀한 타인의 속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관계 상호의존성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두드러지나, 소속 집단, 혹은 사회적 역할과 같은 집단 정체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상호의존성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자들은 “주변 지인들(예: 가족, 친구 등)과 맺고 있는 관계는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여준다.”와 같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RISC)를 개발하였다. RISC 척도는 집단주의와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 구체적으로 공유 지향 척도(Communal Orientation Scale; Clark, Quелlette, Powell, & Milberg, 1987), 집단 지향적인 Singelis (1994)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및 집단 자기존중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 Luhtanen & Crocker, 1992)와 각각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r_s = .41, .41$ 및 $.37$). 이는 RISC가 집단주의나 공유 지향성의 다른 측정치들과 관련은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Cross와 동료들은 RISC로 측정된 관계 상호의존성이 개인의 의사 결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연구참가자들에게 최근 내리고 있는 중요한 결정(예를 들어, 여름 휴가 혹은 이사 계획)을 떠올

려 보도록 한 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참가자들은 해당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주변 사람들의 욕구와 바람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와 자신의 의사 결정에 친한 친구 및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응답하였다. 그 결과,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사항들로 관계와 관련된 요인(예를 들어, 이사 계획의 경우 “가족과 더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다.”)을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 점수가 높을수록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욕구와 바람을 반영하는 정도가 높으며, 결정에 있어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데에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욕구와 바람을 자신의 욕구와 바람만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관계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의 두 층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옹호되었다(개관을 위해서는 Brewer & Yuki, 2007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주변 관계에 얼마나 상호의존적인가를 소속 집단에 얼마나 상호의존적인가와 구분하여, 이 두 유형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주거 유동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주거 유동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주거 안정성이 높은 공동체의 개인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평생에 걸쳐 특정 집단에 속하게 되는 반면, 빈번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개인들은 잦은 이주로 인해 집단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Oishi, 2010; Tonnies, 1887/1957). 그렇다면 거주지를 빈번히 옮겨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소속 집단에 대한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반면, 주

거 이동이 적은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오랜 기간 동안 속해 있게 되므로, 안정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해당 집단과 강한 애착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Oishi, Ishii 및 Lun(2009)은 국가, 지역, 그리고 개인 수준의 비교를 통하여 주거 유동성이 높을수록 상호의존성이 낮아지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높은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은 일본인들에 비하여 집단 구성원들과 조건부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연구 1). 구체적으로, 미국 연구참가자들은 자신과 같은 학교의 졸업생이 실패한 사람으로서 묘사된 경우(대규모 은행의 임원으로서 횡령죄로 고소당함)에 비하여 성공한 사람으로서 묘사되었을 때(축망 받는 대규모 제약 회사의 연구원으로서 에이즈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함), 자신과 해당 동문을 더 강하게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연구참가자들의 경우 졸업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해당 인물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위의 연구자들은 또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소속 집단이 호의적으로 묘사될 때 자신과 집단을 보다 동일시하는 반면, 소속 집단이 비호의적으로 묘사될 경우에는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연구 3). 구체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빈번하였던 연구참가자들은 소속 학교의 순위가 더 높게 평가되었을 때 자신과 학교를 더 강하게 동일시하였던 반면, 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었던 연구참가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주거 유동성이 높아질수록 소속 집단과의 유대감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약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주거 유동성으로 인한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약화가 반드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Kashima et al., 2004). 주거 이동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므로,¹⁾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주거 이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안과 외로움 줄이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의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주거 유동성이 집단적 자기를 약화시키는 반면, 관계적 자기는 약화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Oishi와 동료들(Oishi, Kesebir, Miao, Talhelm, Endo, Uchida, et al., 2013)의 연구에서, 연구참가자들은 전형적인 하루에 대한 글을 쓰거나, 직업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 머무르는 상황에 대한 글을 작성했을 때 비하여, 직업 때문에 매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글을 작성했을 때 외로움 및 슬픔과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거 이동이 잦은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던 연구참가자들은 거주지 이동 없이 같은 장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상황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던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자신이 미래에 더 적은 수의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더 나아가, 주거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였던 연구참가자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때 예상되는 외로움 때문에 사회 관계망을 확장하려는 동기를 더 강하게 보였다. 더불어,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더 넓은 관계망을 지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유년기 동안 잦은 이사를 경험하였던 대학 1학년생들은 이사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에 비하여 캠퍼스 내에서

1) Holmes와 Rahe(1967)가 분류한 43개의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거주지 이동과 관련된 요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각 거주지 이동 관련 요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거주지의 변화 20점, 학교의 변화 20점, 재정 상태의 변화 38점, 사회 활동의 변화 18점, 생활 조건의 변화 25점이었다. 이러한 주거 이동 관련 요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더하면 총 121점으로, 배우자 사망의 스트레스 지수가 100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거주지 이동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페이스북(Facebook) 친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der & Oishi, 2008). 더 나아가, 2년 후 동일한 연구참가자들의 페이스북 친구 수를 다시 비교해본 결과,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이사 경험이 적은 학생들보다 캠퍼스 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 관계망을 넓히려는 동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이주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 비하여 실제로도 동일 기간 동안 더 많은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주거 유동성이 낮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Oishi, Rothman, Snyder, Su, Zehm, & Hertel, 2007; Oishi et al., 2009)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주로 인해 예상되는 외로움을 줄이고자 주변 관계에 의존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주거 이동 경험이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은 약화시키는 반면,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 예상하였다.

주거 유동성과 사회적 지지의 추구

사회적 지지란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상호 도움과 의무를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다는 지각, 혹은 경험으로 정의된다(Wills, 1991). 그 동안 일련의 연구들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Cohen, Sherrod, & Clark, 1986; Dunkel-Schetter, Folkman, & Lazarus, 1987).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홍승범 & 박혜경,

2013). 그 동안 다수의 연구자들이 자기개념 및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Kim, Sherman, Ko, & Taylor, 2006; Kim, Sherman, & Taylor, 2008; Taylor, Sherman, Kim, Jarcho, Takagi, & Dunagan, 2004). 그 가운데 하나로, Taylor와 동료들(2004)은 독립적 자기개념이 강한 유럽계 미국인들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강한 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보다 독립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설부른 일일 수 있다. 선행 문화 간 비교 연구들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추구 수준을 측정 한 뒤, 문화 간에 평균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보고법을 사용하여 측정 한 자료를 문화 간 평균 비교할 때에 겸양 편향(modesty bias; Chen, Lee, & Stevenson, 1995), 극단 편향(extremity bias; Chen et al., 1995; Hui, & Triandis, 1989; Zax, & Takahashi, 1967) 및 참조집단 효과(reference-group effect; Heine, Lehman, Peng, & Greenholtz, 2002)와 같은 일련의 반응 편향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할 때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척도의 중간 값을 사용하는 겸양 편향을 보이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척도의 극단 값을 사용하는 극단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추구하는지 자기보고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과정에 겸양 편향과 극단 편향이 개입되었다면, 실형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다 하여도, 척도 사용 방식 상의 차이로 인하여 응답의 평균이 문화 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참조집단 효과는 자신과 타인을 주관적으로 견주어 답

하도록 하는 척도 항목들이 연구에 사용될 때, 문화에 따라 연구참가자들이 비교의 준거로 삼는 참조집단이 다른 데에서 비롯되는 편향이다. 이 참조집단 효과 역시 자기보고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반응의 평균을 문화 간 비교하여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만약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보다 절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한다고 지각하였고,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주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더 추구한다고 지각하였다면, 이와 같은 주관적 평정의 결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지 추구 수준의 평균을 문화 간에 비교하기보다 한 사회 내에서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과 상호의존적인 사람들 간에 사회적 지지 추구의 정도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행되었던 일련의 연구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할 가능성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Cross와 Madson(1997)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일수록 자기노출을 많이 하며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들에서도, 문화 간 비교 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되게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함과 동시에 많이 추구한다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박경란, 2000; 원은정, 2005; 이혜란, 2006; 홍승범 & 박혜경, 2013). 일례로, 홍승범과 박혜경(2013)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비교 문화 연구(Taylor et al., 2004)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수준을 측정하고, 개인

의 문화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였다. 그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건대, 한국 사회에서도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독립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박혜경, 2013; Oishi, Lun, et al., 2007; Oishi, Rothman, et al., 2007; Oishi et al., 2009)에서 보인 바와 같이, 주거 유동성과 안정성이 자기개념 및 사회 행동에서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각각 고양시킨다면,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추구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주거 유동성이 독립성을 고양시키며, 한 사회 내에서 독립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 목표

주거 유동성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거주지 이동이 빈번한 서구 개인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목표는 서구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빈번하지 않으며, 집단주의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 유동성의 영향을 검증하는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거주지 이전 경험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의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에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

이가 없거나, 오히려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아 질수록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의 수준이 높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주거 이동성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즉,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적게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 218명이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한 총 204명(남자 72명, 여자 131명, 성별 미확인 1명; 연령 평균 = 22.50세, 표준편차 = 2.25세, 연령 미확인 1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측정도구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Cross와 동료들(2000)이 개발하였던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RISC)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주변 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정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변 지인들(예: 가족, 친구 등)과 맺고 있는 관계는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여준다.”와 같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소속 집단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소속 집단을 바탕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정도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 되도록 Cross 등(2000)의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 항목들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연구참가

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였다(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의 제시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 되었다. Cross 등이 보고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6이었다. 다음으로,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추구

연구참가자들이 부모,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성적, 과제 등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최근 경험하였던 사회적 및 학업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시문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경험합니다. 함께 자취하는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성친구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으며,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귀하께서 경험하셨던 가장 큰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하여 아래의 빈 칸에 간략하게(3-5문장 정도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받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학업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편의

표 1.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주변 지인들(예: 가족, 친구 등)과 맺고 있는 관계는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여준다.	나의 소속 집단은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여준다.
나와 매우 가까운 지인이 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자주 느낀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자주 느낀다.
전반적으로, 가까운 지인들(예: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나의 소속 집단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변 가까운 지인(예: 가족, 친구 등)이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을 때, 나는 보통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속한 집단이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을 때, 나는 보통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가까운 지인(예: 가족, 친구 등)의 상처가 마치 내 개인적인 상처처럼 느껴진다.	나의 소속 집단이 입은 손해가 마치 내 개인적인 손해처럼 느껴진다.
나와 친한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알아봄으로써, 나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살펴보고 그 집단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나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지인들(예: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	나의 소속 집단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보통 친밀한 우정을 맺은 사람을 나 자신과 강하게 동일시한다.	나는 보통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소속 집단을 나 자신과 강하게 동일시한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나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해볼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해볼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지인들(예: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는 내 자기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나의 소속 집단은 내 자기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의 자부심은 내가 어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가에서 나온다.	나의 자부심은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서 나온다.

보고서 마감 시한이 겹쳤을 수도 있고, 중요한 과제물에 대하여 나쁜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으며, 수강하는 과목이 너무 어려웠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귀하게서 경험하셨던 가장 큰 학업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하여 아래의 빈 칸에 간략하게(3-5문장 정도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및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기술한 후, 각각의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즉 각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7점 척도에 평정하였다(1: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 7: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마지막으로, 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추구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Carver와 동료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COPE scales)가

운데 도구적 사회지지 및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에 관한 하위척도들을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도구적 사회지지의 추구는 타인으로부터 조언, 도움, 혹은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려 노력한다.”와 같은 총 4개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정신적인 지원, 동정, 혹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과 이해를 받는다.”와 같은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사회적 및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사회적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 답하는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경우 도구적 사회지지의 추구 척도와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 척도가 각각 .82와 .88이었으며,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각각 .85와 .86이었다. 결과 분석에는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과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구적 및 정서적 지지를 추구한 정도를 평균한 전반적 사회지지 추구 점수가 사용되었다(Cronbach's alpha = .90).

성격변수

신경증 및 외향성이 주거 유동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Oishi & Schimmack, 2010; Park, Kitayama, Karasawa, Curhan, Markus, Kawakam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성격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신경증과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1992)의 성격 검사(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신경증과 외향성에 관한 하위 척도들에 대하여 각각 10문항씩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신경증과 외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든 연구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무선적

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경증과 외향성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91과 .90이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먼저, 연구참가자들은 거주지 이전 경험(출신지를 포함하여 출생 후 거주하였던 지역과 각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기간을 만 나이로 응답; 박혜경, 2013; Oishi, Lun, et al., 2007; Oishi & Schimmack, 2010)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가족 현거주지와 본인 출신지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답한 후, 여기에 ‘예’라고 응답한 연구참가자들은 추가로 가족이 현재 지역에서 이주 없이 거주한 기간을 보고하였다. 가족 거주 기간은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1) 조부모 세대 이전부터, (2) 조부모 세대부터, (3) 부모 세대부터, 혹은 (4)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와 더불어, 연구참가자들은 부모의 최종 학력과 연간 가계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질문들에도 응답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 졸업, (4) 4년제 대학교 졸업, (5) 석사학위 취득, 혹은 (6) 박사학위 취득. 연간 가계 소득은 다음의 일곱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1) 1천만 원 이하, (2) 1천-3천만 원, (3) 3천-5천만 원, (4) 5천-7천만 원, (5) 7천-9천만 원, (6) 9천만-1억 1천만 원, 혹은 (7) 1억 1천만 원 이상. 선행 연구(e.g., Kraus, Piff, & Keltner, 2009)를 따라, 부모의 교육 수준, 본인의 교육 수준, 그리고 연간 가계 소득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후 합산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 = .71).

절차

이 연구는 심리학 전공 강의 시간에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 연구참가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측정도구들이 포함된

소책자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성격변수, 사회적 지지 추구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각 척도의 제시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거주지 이전 경험과 가족 현 거주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소책자를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할 수 있도록 연구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약 20~25분)이 주어졌다.

결 과

거주지 이전 경험

이사 경험에 관한 연구참가자들의 응답에 기초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을 계산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e.g., 박혜경, 2013; Oishi, Lu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만 5세 이후부터의 거주지 이전 경험만을 계산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거주지 이주 횟수는 0회에서 9회의 범위에 있었다($M = 2.00$, $SD = 1.86$, $Skeuness = 1.17$). 구체적으로, 총 204명의 연구참가자 가운데(거주지 이전 횟수 미확인 1명), 48명(23.5%)은 이사 경험이 없었으며, 47명(23.0%)은 1회, 46명(22.5%)은 2회, 22명(10.8%)은 3회, 21명(10.3%)은 4회, 7명(3.4%)은 5회, 7명(3.4%)은 6회, 1명(0.5%)은 7회, 3명(1.5%)은 8회, 그리고 1명(0.5%)은 9회의 거주지 이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주거 유동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 간의 단순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와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64$, $p < .01$). 그리고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신경증 성향은 약해지는 반면($r = -.14$, p

$< .05$), 외향성은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r = .19$, $p < .01$). 본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보다 중요하게, 거주지 이전 횟수가 증가할수록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 점수는 감소하는 반면($r = -.14$, $p < .05$), 거주지 이전 경험과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 점수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r = .07$, $n.s.$).²⁾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주거 유동성과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및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있었다. 이에 앞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전반적인 상호의존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와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의 평균인 전반적인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를 준거변수로, 거주지 이전 경험을 예측변수로, 신경증, 외향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모형의 1단계에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성격변수를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격 요인이 성장 과정에서의 이사 경험과 성인기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Oishi & Schimmack, 2010)를 고려하여, 연구참가자의 신경증과 외향성을 통제 변수로서 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가족을 따라 거주지를 옮겼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통제 변수로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거주지 이전 횟수를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관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

2) 거주지 이전 횟수와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 간 상관계수, 그리고 거주지 이전 횟수와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 간 상관계수는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z = .71$, $n.s.$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다루었다.

표 2.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1	2	3	4	5	6
1. 거주지 이전 경험						
2.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07					
3.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14*	.64**				
4. 신경증	-.14*	.05	.08			
5. 외향성	.19**	.24**	.23**	-.23*		
6. 사회경제적 지위	.13	-.04	-.01	.06	.09	
평균	2.00	4.69	4.58	3.89	4.36	-.06
표준편차	1.86	.79	.94	1.20	1.06	2.39

* $p < .05$, ** $p < .01$.

표 3. 전반적인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수	1단계			2단계		
	<i>B</i>	<i>SE</i>	β	<i>B</i>	<i>SE</i>	β
신경증	.09	.05	.13	.07	.05	.11
외향성	.20	.05	.28**	.22	.05	.30**
사회경제적 지위	-.02	.02	-.06	-.01	.02	-.04
거주지 이전 횟수				-.07	.03	-.17*
	$R^2 = .08**$			$R^2 = .11, \Delta R^2 = .03*$		

* $p < .05$, ** $p < .01$.

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경증, 외향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연구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연구참가자의 거주지 이전 횟수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신경증, 외향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들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전반적으로 덜 상호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beta = -.17, p < .05$).

다음으로, 주거 유동성이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및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아질수록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에 있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거나, 오히려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아질수록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 측정변수들과 더불어 이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와 동일한 통제 변수들을 포함시킨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 및 집단 상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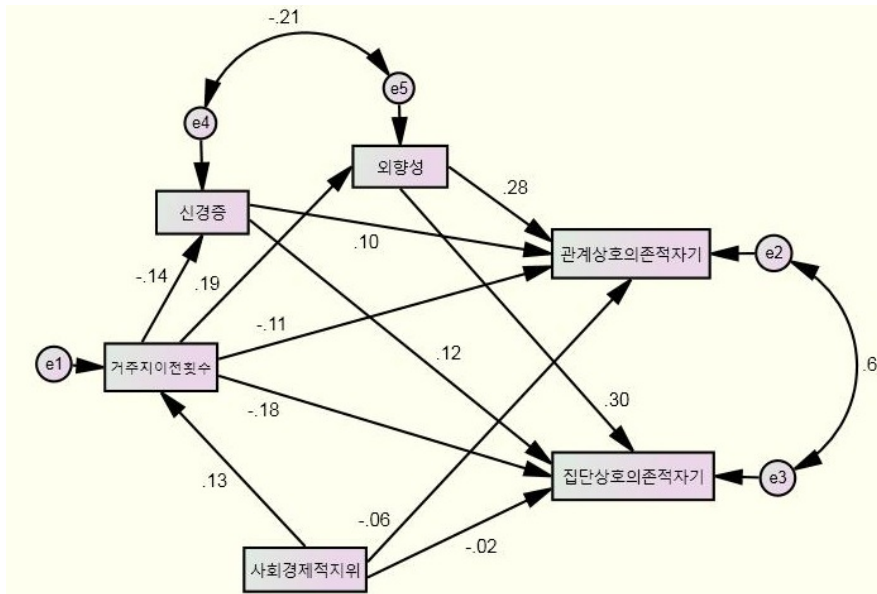


그림 1. 거주지 이전 횟수와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모형

존적 자기개념 점수를 준거변수로, 거주지 이전 횟수를 예측변수로, 신경증, 외향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796$ ($df = 2, p = .25$), TLI = .940, CFI = .994, RMSEA = .044이었다. 각각의 지수가 모두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 모형은 자료에 부합하는, 수용 가능한 모델로 볼 수 있다. 연구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주지 이전 횟수에서 연구참가자들의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이전 횟수가 증가할수록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점수는 낮아졌다($\beta = -0.18, p < .01$). 그러나 거주지 이전 횟수에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11, n.s.$).³⁾

3) 이주 횟수가 5회 이상이었던 연구참가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이사 경험이 5회 이상이었던

연구참가자들(즉, 이사 경험 5회부터 9회)을 한 범주로 분류한 뒤 거주지 이전 횟수를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신경증, 외향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전반적으로 덜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6, p < .05$). 다음으로, 관계 및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699$ ($df = 2, p = .26$), TLI = .947, CFI = .995, RMSEA = .041로, 각각의 지수가 모두 기준치보다 높았다. 연구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 이전 횟수에서 연구참가자들의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한 반면($\beta = -0.17, p < .01$), 거주지 이전 횟수에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10, n.s.$). 이와 같이 연구참가자들의 거주지 이전 경험을 0회부터 5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본 논문에 보고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주지 이전 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추구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만약 주거 유동성이 독립성을 고양시킨다면,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스트레스 및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를 평균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추구 점수를 준거변수로, 거주지 이전 경험을 예측변수로,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신경증, 외향성, 그리고 사회적 및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수준을 평균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모형의 1단계에는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성격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즉,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신경증, 외향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1단계에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거주지 이전 횟수를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다른 변

수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관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투입된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신경증, 외향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의 추구 정도를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연구참가자의 거주지 이주 횟수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대한 설명력이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신경증, 외향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beta = -.15, p < .05$).

논 의

본 연구의 주목표는 서구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으며 집단주의적 가치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지리적 이동

표 4.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추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측변수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성별	.27	.11	.18*	.22	.11	.15*
사회경제적 지위	-.02	.02	-.05	-.01	.02	-.03
신경증	.05	.05	.08	.04	.05	.07
외향성	.17	.05	.25**	.19	.05	.27**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14	.06	.19*	.14	.05	.20*
거주지 이전 횟수				-.06	.03	-.15*
			$R^2 = .15^{**}$ $R^2 = .17, \Delta R^2 = .02^*$			

* $p < .05$, ** $p < .01$.

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거주지 이전 경험과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 및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었다.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주거 유동성이 독립성을 고양시키며 상호의존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왔으나(e.g., Oishi et al., 2009; Oishi, Lun, et al., 2007; Oishi, Rothman, et al., 2007; Sevincer, Park, & Kitayama, 2009), 지금까지 개인 수준의 주거 유동성이 상호의존성의 약화와 관련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을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이 증가할수록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반면,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에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아질수록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은 강화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즉, 주거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하였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과 관련하여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유동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전반적으로 덜 상호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과 일관되게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은 주거 이동 경험이 증가할수록 약화되는 것과 다르게,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에 있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과정에서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집단 소속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약한 반면, 가족, 연인, 친한 친구 등과 같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잦은 이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성격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욱 적게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거 유동성이 개인의 독립성을 고양시킨다는 선행 연구들(e.g., Oishi, Lun, et al., 2007; Sevincer et al., 2009)의 결과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지리적 이동이 자기개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과 같은 사회 행동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지리적 이동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유동성의 심리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높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박혜경, 2013). 따라서 지리적 이동에 관한 이전 연구의 결과들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일본에서 수행되었던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주거 유동성이 높은 도시에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조건부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주거 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신과 공동체를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Oishi et al., 2009, 연구 2). 이는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으며 상호의존적 가치가 중시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주거 유동성과 안정성이 각각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고양시킴을 보여준다. 이렇듯 집단 수준의 주거 유동성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인 문화 맥락에서도 개인 수준의 지리적 이동 역시 약화된 상호의존성과 관련됨을 밝힘으로써, 주거 유동성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가 문화보편적인지를 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추후, 국내에서도 주거 유동성의 심리사회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 경험이 잦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소속 집단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유동성이 높은 도시의 거주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조건부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행 연구(Oishi et al.,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관계 상호의존성 수준에는 위와 같은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기는 사람들일수록 잦은 이주로 인해 예상되는 외로움을 줄이고자 관계를 넓히려는 동기가 더 강하며(Oishi et al., 2013), 이주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 비하여 동일 기간 동안 실제로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었다는(Seder & Oishi, 2008) 선행연구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전 연구들에서의 논의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있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몇 가지 요인을 아래와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연구참가자들의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 항목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을 별도로 탐색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역시 개발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Gabriel & Gardner, 1999)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 항목들에서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를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체하여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두 척도 항목들 간 표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연구참가자들이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과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 간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

제로도 두 척도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두 척도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있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계 및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척도와 함께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 연구참가자들의 상호의존성을 측정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와 소속 집단에 대해 나열해보게 한 다음, 각각이 자신에게 중요한 정도를 평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 및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측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견주어봐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사회 관계망을 넓히려는 동기가 서로 중요하게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있어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자신이 주변 관계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게 여기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관계망을 확장하려는 동기가 얼마나 있는지, 혹은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비하여, 나와 정말 친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Cross 등(2000)에 의하면,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기술해보도록 했을 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언급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도를 높게 지각하며 가까운 지인들이 자신에게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기는 사람들이 낮은 환경에서 유발되는 외로움과 불안을 줄이고자 관계망을 넓히려는 동기가 강할지라도(Oishi et al., 2013), 잦은 이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과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변의 친밀한 지인들을 바탕으로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약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주

변 관계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 혹은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거주지 이전 경험과 관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주거 유동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개인의 지리적 이동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논하는 것은 선부를 수 있다. 가령, 애초에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덜 상호의존적인지(즉, 자기선발; 개관을 위해서는 Kitayama, Ishii, Imada, Takemura, & Ramaswamy, 2006 참조), 혹은 역으로 빈번한 거주지 이전 경험이 사람들을 덜 상호의존적이 되도록 만드는지와 관련하여 양방향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따라 거주지를 옮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들은 후자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지리적 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상호의존적인 성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인기 이후 자발적 선택을 통한 지리적 이동 역시 개인을 덜 상호의존적이 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비자발적인 이동만이 상호의존성의 약화와 관련될 것인가? 지리적 이동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통한 지리적 이동의 효과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tayama와 동료들(2006)은 척박한 변경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애초에 보다 독립적 기풍을 지니고 있으며, 변경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거주민들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빈번히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애초에 덜 상호의존적이며, 독립적 성향이 더욱 강

할 것이다. 또한 잦은 이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호의존적 가치들보다 독립적 가치들을 더 강하게 내면화할 것이다. 추후, 실험 연구를 통해 주거 유동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사이의 인과적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함과 동시에, 거주지 이전 경험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지리적 이동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 유동성이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Oishi(2010)는 주거 유동성이 자기개념과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아동기의 주거 유동성은 성인기의 흡연, 음주, 우울, 자살 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Dong, Anda, Felitti, Williamson, Dube, Brown, et al., 2005). 또한, 성장 과정에서 잦은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나이, 인종, 교육 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으며, 긍정 정서에 비하여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10년간의 종단 연구 기간 동안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Oishi & Schimmack, 20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 경험은 상당한 스트레스 유발요인(Holmes & Rahe, 1967)이므로,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낯선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거 유동성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Cohen, 1988), 낯선 지역으로의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다루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 이동 경험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순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추후, 사회적 지지가 주거 유동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거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리적 이동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종합하건대, 본 연구를 통하여 성장 과정에서 잦은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집단 중심적 상호의존성은 약한 반면, 관계 중심적 상호의존성에 있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서구 사회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으며 집단주의적 가치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주거 유동성이 자기개념 및 사회 행동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약화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주거 유동성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최근 신도시, 행정도시의 개발 및 귀농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앞으로 국내에서도 지리적 이동과 주거 유동성의 심리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경란 (2000). 우리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소외. *중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경 (2013). 주거 유동성, 독립성의 가치 및 독특성 선호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 87-110.

원은정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우울취약성,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란 (2006).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또래동조성, 의사결정방식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n.d.). 국내인구이동통계. Retrieved October 13, from <http://kosis.kr/>

홍승범, 박혜경 (2013). 문화성향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 125-150.

Adam, E. K. (2004). Beyond quality: Parental and residential stabi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s*, 13, 210-213.

Adams, G., & Plaut, V. C. (2003). The cultural grounding of personal relationship: Friendship in North American and West African worlds. *Personal Relationships*, 10, 333-347.

Baumeister, R. F. (1986). *Identity: Cultural change and the struggle for self*.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Baumeister, R. F. (1987). How the self became a problem: A psychological review of histor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63-176.

Brewer, M. B., & Chen, Y.-r.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 133-151.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Brewer, M. B., & Yuki, M. (2007). Culture and social identity. In S. Kitayama & D. Cohen

-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307-322).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183.
- Chen, C., Lee, S.-y., & Stevenson, H. W. (1995). Response sty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rating scales among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6*, 170-175.
- Clark, M. S., Quелlette, R., Powell, M. C., & Milberg, S. (1987). Recipient's mood, relationship typ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94-103.
- Cohen, D. (2003). The American national conversation about (everything but) shame. *Social Research, 70*, 1075-1108.
- Cohen, S. (1988). Psychosoci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 267-297.
- Cohen, S., Sherrod, D. R., & Clark, M. S. (1986).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63-973.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Dong, M., Anda, R. F., Felitti, V. J., Williamson, D. F., Dube, S. R., Brown, D. W., et al. (2005). Childhood residential mobility and multiple health risks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9*, 1104-1110.
- Dunkel-Schetter, C., Folkman, S., & Lazarus, R. S. (1987). Correlates of social support recei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1-80.
- Gabriel, S., & Gardner, W. L.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42-655.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scales?: The reference-grou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903-918.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ui, C. H., & Triandis, H. C. (1989). Effects of culture and response format on extreme response sty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296-309.
- Kashima, Y., Kokubo, T., Kashima, E. S., Bozall, D., Yamaguchi, S., & Macrae, K. (2004). Culture and self: Are there within-culture differences in self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regional c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816-823.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c.,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ennedy, L. W. (1984). Residential stability and social contact: Testing for saved versus liberated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2*, 3-12.

- Kim, H. S., Sherman, D. K., Ko, D., & Taylor, S. E. (2006). Pursuit of happiness and pursuit of harmony: Culture,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see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595-1607.
- Kim, H. S., Sherman, D. K., & Taylor, S. E. (2008). Culture and social support. *American Psychologist*, 63, 518-526.
- Kitayama, S., Ishii, K., Imada, T., Takemura, K., & Ramaswamy, J. (2006). Voluntary settlement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Evidence from Japan's "Northern Fronti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69-384.
- Kling, K. C., Ryff, C. D., & Essex, M. J. (1997). Adaptive changes in the self-concept during a life transi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981-990.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92-1004.
- Long, L. H. (1992).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residential mobility of American's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861-869.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Oishi, S. (2010). The psychology of residential mobility: Implications for the self, social relationships, and well-being.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 5-21.
- Oishi, S., Ishii, K., & Lun, J. (2009). Residential mobility and conditionality of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913-919.
- Oishi, S., Kesebir, S., Miao, F. F., Talhelm, T., Endo, Y., Uchida, Y., et al. (2013). Residential mobility increases motivation to expand social network: But wh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217-223.
- Oishi, S., & Kislring, J. (2009). The mutual constitution of residential mobility and individualism. In R. S. Wyer Jr., C.-y. Chiu, & Y.-y. Hong (Eds.), *Understanding culture: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223-238).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Oishi, S., Lun, J., & Sherman, G. D. (2007). Residential mobility, self-concept, and positive affect in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131-141.
- Oishi, S., Rothman, A. J., Snyder, M., Su, J., Zehm, K., Hertel, A. W., et al. (2007). The socioecological model of procommunity action: The benefits of residential 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31-844.
- Oishi, S., & Schimmack, U. (2010). Residential mobility, well-being, and mort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980-994.
- Park, J., Kitayama, S., Karasawa, M., Curhan, K., Markus, H. R., Kawakami, N., et al. (2013). Clarifying the links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Culture, stress, and neuroticism matter.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 226-235.
- Schmitt, E. (2001, August 6). *Census data show a sharp increase in living standard*.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www.nytimes.com/2001/08/06/national/06CENS.html
- Seder, J. P., & Oishi, S. (2008, February). *Friendculture: Predictors of diversity in the social networks of college stud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lbuquerque, NM.
- Sevincer, A. T., Park, H., & Kitayama, S. (2009).

- [Settlement and implicit independence: Comparing in-state and out-of-state students in a German university].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Hamburg.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tokols, D., Schmaker, S. A., & Martinez, J. (1983). Residential mobility and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19.
- Taylor, S. E., Sherman, D. K., Kim, H. S., Jarcho, J., Takagi, K., & Dunagan, M. S. (2004).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87, 354-362.
- Tonnies, F. (1887/1957). *Community and society* (C. P. Loomis, Trans.). Mineola, NY: Dover.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urner, F. J. (1921).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NY: Henry Holt.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Overcoming barriers, human mobility and development*. UNDP, New York.
- Wiggins, J. S. (1991). Agency and communion as conceptual coordinates for the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D. Cicchetti & W. Grove (Eds.), *Thinking critically in psych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E. Meehl* (Vol. 2., pp.89-113).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2, pp. 265-289). Thousand Oaks, CA: Sage.
- Zax, M., & Takahashi, S. (1967). Cultural influences on response style: Comparisons of Japanese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1, 3-10.
- 1 차원고접수 : 2013.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3. 11. 24.
최종게재결정 : 2013. 11. 26.

A Psychological Inquiry of Residential Mobility: On the Relation among Residential Mobility,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Support Seeking

Seungbeom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residential mobility, i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research attention in Korea.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how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pursuit of social support would vary as a function of one's personal history of residential mov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number of residential mov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llective-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haracteriz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individual defines the self in terms of group memberships), whereas it was not related to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haracteriz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individual defines the self in terms of close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individuals with frequent moves were less likely to seek social suppor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residential mobility are discussed.

Key words : residential mobility,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ollective-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ocial support seeking